



반산스님의

### 경전읽기

화엄경

이제 여덟 번째 법회가 다시 보광명전에서 열리고 있다. 여기서는 이세간품(離世間品) 한 품만이 설해진다. 여기서는 보혜(普慧)보살의 200가지 질문에, 보현보살이 한 물음에 10가지씩 대답하니 모두 2,000가지 법문이 설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이세간(離世間)이란 곧 처엄상정(處染常淨)을 뜻하는 말이나 동사섭(同事攝)으로 중생과 함께 어울리지만 번뇌에 물들지 않는 경계이다(如蓮華不着水). 계승으로 보자.

보살은 연꽃과 같아서 자비는 뿌리 되고 편안한 것 즐기며 지혜는 꽃송이요 계율은 깨끗한 향기(菩薩如蓮華 慈根安隱莖 智慧為藥 戒品為香) / 부처님 법의 광명을 놓아 그 연꽃 피게 하니 하염 없는 물(佛為水)이 물

가 과거의 여러 부처님께 선근 공덕을 많이 지어 대승의 불법을 잘 이해할 근기임을 알아보았다. 문수보살이 말하였다. "착한 남자여, 온갖 지혜의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결정코 선지식을 찾아야 하느니라. 착한 남자여, 선지식을 찾는 일에 고달프고 게으른 생각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보고는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선지식의 가르치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고, 선지식의 교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라(求善知識 勿生疲懈 見善知識 勿生厭足 於善知識 所有教誨 皆應隨順 於善知識 善巧方便 勿見過失).

여기서 온갖 지혜를 구족하는 첫째 인연은 선지식을 친근하고 공양하는 것이며 둘째, 도중에 고달픈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요 셋째, 선지식의 선교방편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는 등으로

### 번뇌 물들지 않는 동사섭

만행성불신앙 남녀·종교 평등 가르쳐

지 못하며 보는 이는 모두 다 기뻐하더라(佛放光明 令彼得開敷 不著有為水 見者皆欣樂).

이어서 아홉번째 서다림(隨多栴胝會)에 참여하러 한다. 먼저 사위국 기원정사의 장엄루각(莊嚴樓閣)에서 부처님께 사자의 기운 뱀은 삼매에 드신 후 설법을 시작하신다. 그 거룩한 모습을 경문으로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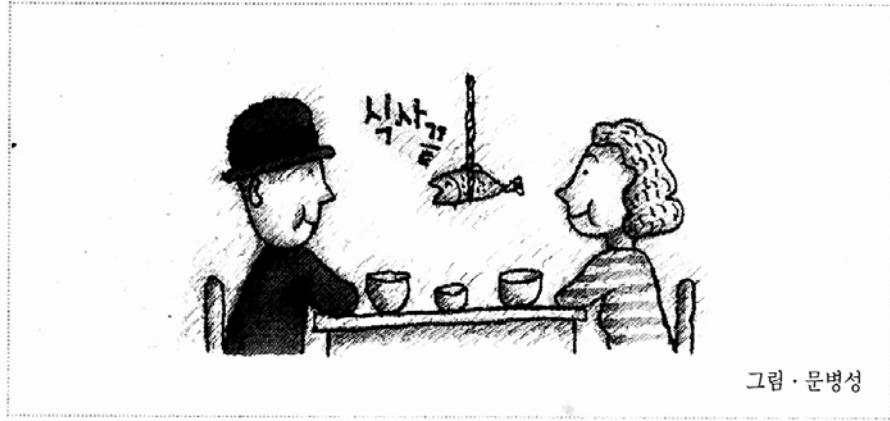
그 때 세존께서 보살들의 생각함을 아시고, 큰 자비로 몸이 되고 큰 자비로 문이 되고 큰 자비로 머리가 되고 크게 자비한 법으로 방편을 삼아 허공에 중만하사 사자의 기운 뱀은 삼매(獅子頻呻三昧)에 드시니, 모든 시간이 모두 깨끗하게 잠입하여지고, 그 때에 이 크게 잠입한 누각이 별안간에 넓어져서 끝닿은 데가 없었다.

이렇게 근본법회를 마무리하고, 문수사리동자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는 남쪽으로 만행의 길을 떠난다. 이 때 문수보살은 복성(福城) 동쪽 장엄당(莊嚴幢)사라(妙羅) 숲에서 500명의 복성 사람들을 교화하고 계시면서, 그 중에 선재동자(善財童子)

격려하고 있다. 제일 먼저는 승락국(勝樂國)의 묘봉산(妙峯山)에서 수행하는 덕운(德雲)비구를 비롯하여 모두 54명의 선지식의 찾아가 법문을 배운다. 모든 선지식을 찾아가서는 한결같이 질문하기를, 보살은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습니까라 하였다.

찾아간 선지식은 모두 54분인데 그 중에 다양한 각 방면의 해탈문을 보여준다. 소개된 선지식으로는 보살, 비구, 비구니, 장자 등이며, 그 중에는 여성이 21분이나 되고, 외도인 바라문은 물론 수행자가 아닌 뱀사공유녀(遊女)에까지 법을 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화인의 만행성불(萬行成佛)신앙은 그 말바탕에 남녀평등과 종교평등 나아가 진속무애(眞俗無碍)에 이르는 폭넓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문화충돌로 빚어진 이번의 아프간사태로 뭇 생명이 희생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봉선사 불교학원 연구원



그림·문병성

## 욕망 줄이면 인류 앞날 밝다

### 불교와 과학 <47>·끝

과학은 인류에게 크나큰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생활이 편리해진 것은 물론이고 인간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도 과학의 덕택이었다. 땅덩어리 저쪽 끝으로 가면 남떨러지가 될 것이라는 옛사람들의 믿음은 땅의 끝이 곧 우주의 끝이라는 아주 좁은 물리적 우주관일 뿐이었다. 이제 겨우, 우주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크기라는 것. 조금은 알게 되었다. 비행기로 열 시간만 가면 지구 저쪽 대륙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콩나물 사러 갈 때도 자동차를 이용할 정도로 편한 세상이 되었다. 컴퓨터의 혁명은 말할 필요가 없었고, 유전자 공학의 발전으로 복제된 생명체가 원래 자연의 생명체를 대신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물질적 풍요로움은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를 낳게 하여 지금도 10억의 인구가 기아의 상태에 놓여 있다. 분명히 인간의 수명이 늘기는 했지만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질병이 자꾸 늘어난다. 인구가 60억을 넘어가면서 공급과 소비의 구조가 깨져서 가고 있다. 서구과학 이면이 숨겨진 권력의 논리는 오늘의 아프가니스탄 보복 공격을 강행하기에 이르러, 불행의 역사는 악순환으로 빠지고 만다. 전지구적으로 심각한 환경위기는 단적으로 말해서 지나는 과학기술의 부작용이라는 점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컴퓨터의 예를 들자면 앞으로 가상현실 속에서 자아의 상실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며, 인터넷상에서 개인 신상정보의 안전성 파괴문제도 아마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더구나 유전자 공학의 발전이 과연 진정한 인류의 진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미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여전히 큰 불씨를 안고 있다.

과학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행복이 물질적인 것으로 충족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통할 수 없이 있어 왔다. 그런데도 우리는 물질의 환상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물질의 충족은 과학기술이 가져다 주었지만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과학기술이 질 수 있는지의 의구심이 든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 역시 환상이다. 인간에게서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욕망을 채우려고만 들 것이 아니라 욕망의 그릇을 작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는 추상적인 요청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인류의 강령이 되어야 한다. 이미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이런 강령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즉 끝없는 소비욕구를 채우려고 원래 제한되어 있는 공급구조를 영원히 늘릴 수 있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소비와 욕망을 줄일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만 인류문명의 시급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불교의 인류적 과제다. 과학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과학기술로부터 야기된 병폐들을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에는 불교 역시 과학과 어떤 방식이든지 같이 만나고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진보인가? 앞으로 무작정 나가는 것이 진보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앞은 어디에 있는가? 단지 물리적 시간의 미래가 앞인가? 그 앞이라고 해야 150억 년이라는 우주적 시간의 바다에 비교하면 코 박고 죽을 점시물도 안 되는 그런 짧은 미래일 뿐이다. 아마도 모든 사람과, 모든 벌레들과 풀

들, 모든 물과 땅과 하늘이 함께 맥동하고 같이 숨쉬고 더불어 움직이며 서로 얽혀 껴어 있음을 안다면 미래의 진보는 벌써 진작에 내 마음 속에 와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버지 바지 고쳐서 어머니 고쟁이 만들고, 어머니 고쟁이 풀어서 오빠 팬티 만들고, 오빠 팬티 풀어서 오빠 쪽쪽 삶아서 부엌 행주로 쓰다가, 그것도 헐랑해지면 마두 뒹는 걸레로 하다가, 그것도 조각되면 아궁이 불막이로 썼다가, 끝내는 아궁이 속의 불쏘시개가 되어 구들장을 데워 주니 우리 할머니 쪽 주무시네?

■최충덕/상지대 교수 jchok@chak.sangji.ac.kr

오늘은 '불교와 과학' 연재를 마칩니다. 지난 일년동안 '불교와 과학' 원고를 집하신 모든 독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과학 가운데서도 주로 물리학, 생물학과 천문학을 제가 조금 아는 불교의 화엄학과 비교했습니다. 괜히 어렵기만 한 글을 내놓게 되어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과학이 갖는 한계라고 위안하지만, 사실 과학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불교공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공부가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지 저의 작은 보람이었습니다.

## “사랑과 용서만이 테러 상처 치유책”

지구촌 불교 / 리처드 기어 '화해론'

“테러의 상처는 사랑과 용서로 치료해야 합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스타 리처드 기어(Richard Gere, 영화배우)가 9일 티베트 스승의 수상록 출판기념회에서 언급한 이 말이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에비뉴뉴스(ABCNEWS)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할리우드의 최대 스타의 말이라는 점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나왕 게이예 린포체(Rimpoché Nawang Gehle)의 <선한 삶과 죽음(Good Life, Good Death)> 출판기념회에서 기어는 “테러를 당한 우리(미국)는 테러의 희생자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회고도 나 그 나라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좀더 넓은 안목으로 이번 사태를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 다음 “테러범이나 이들의 종교와 나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부처



리처드 기어

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공생의 존재이자 내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사랑과 용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어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살필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과 테러범과의 인연의 고리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우리 미국’이라는 한정된 테두리를

### “가해자·피해자 모두 공생” 역할

전쟁 상황 미국 내 찬반 대립

벗어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포용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소중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기어의 말을 인용, 보도한 에비뉴뉴스는 “기어가 할리우드 영화인 중에서 가장 독실한 불자라는 점에서 그의 말이 심층 이해되지만, 미국 내에서 이슬람국가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범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이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특히 에비뉴뉴스는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폭격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이에 대한 찬반론이 대립되고 있는 미묘한 상황에서, 세계무력센터에 대한 테러 이후 기어의 첫 공식적인 입장은 찬반론에 휩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비뉴뉴스는 “이미 할리우드가(기어)에서는 기어의 말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홀랜드 커티(Holland Cotter)는 ‘폭력의 그림자에 감춰진 아름다움(Beauty in the Shadow of Violence)’에서 기어의 말을 인용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가니스탄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공습에 반대하는 반전 시위가 뉴욕과 버클리 등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잇따랐다. 8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도 아프간 공습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무정부주의자와 평화주의자들이 대부분인 시위군중들은 “폭력을 중지하라, 전쟁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반전시위는 과거 베트남 전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도 9일 계속돼 300여명의 시위대가 대아프간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a.com

#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 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47-5300



“BBS불교방송 (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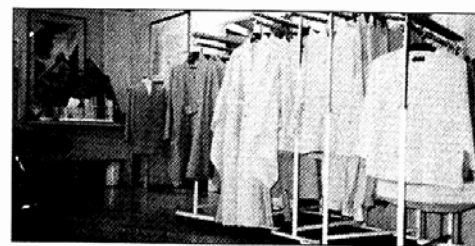
## 승복·법복·누비·바탕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음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 ◆ 추동복 : 촉감이 매우 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편함.
- ◆ 누비 : 고급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 ◆ 장삼 : 추동장삼으로서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 ◆ 가방 :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한이 특징.



스님께 가사봉사 보시하면 10불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계발판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비치, 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풍 방	남·여	120,000
누비	상 하	남·여	190,000
	두루막	남·여	160,000
	방한복	남·여	130,000
	보온복	남·여	70,000
장삼 (조계종 태고종)	남·여	220,000	
승가방	중	28,000	
	소	23,000	
마당 (연꽃무늬)			30,000

※ 처이나, 라운드, 신도복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 기원섬유

본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302호

전화 : 053)764-4114 H·P : 011)9850-4400